

## 초산모에 대한 어머니 역할 교육이 영아 돌보기 자신감 및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효과

방 경 숙\* · 한 경 자\*\*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영유아의 건강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함은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으며 모두가 수긍하는 사실이다(Bromwich, 1997; Meisels & Shonkoff, 1990). 그러나, 어머니 역할에 대한 배움의 기회가 없는 현대의 핵가족 사회에서 초산모들은 영아를 돌보는 데 있어 자신감이 부족하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김지신, 1994; 유안진과 김연진, 1997; 한경자, 1997). 영아의 특성과 돌보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영아를 잘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며, 이러한 자신감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여 전반적인 어머니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한다(이은숙, 1987; Mercer, 1981).

발달의 기초가 거의 완성되는 출생 후 3세 이전의 초기 아동기의 건강은 전 일생의 건강을 좌우하며, 그 중에서도 생후 첫 2년 동안은 뇌신경세포의 형성이 태아기의 속도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이다(Shore, 1997). 한편, 부모는 자녀의 건강, 안녕, 그리고 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에서 자녀의 건강을 보장하는 존재이며, 자녀로 하여금 친밀감, 보장감, 그리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존재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

녀의 가장 밀접한 직접적인 환경이 된다. 특히 영유아기 경험은 전적으로 어머니가 제공해 주는 돌봄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영유아를 돌보아 주는 환경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영유아의 건강일탈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최상의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부모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조기중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Bromwich, 1997).

이와 같이 영유아 건강에 있어 부모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족형태가 극도로 핵가족화 되어가는 현대의 젊은 부부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정식 교육이나 관찰을 통한 학습의 기회가 부족되거나 거의 없어 출산 후 흔히 자녀양육 문제로 당황하고 혼란에 빠진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들은 영아기 어머니들이 여러 가지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거나(조결자 등, 1997; 한경자 등, 1994; 한경자, 1997) 영아돌보기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이 부족함을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다(곽연희, 이미라, 1996; 전은미, 1993).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양육태도와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영아의 건강과 발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신생아 및 영아기 부모역할장애로 인한 문제는 사소한 건강문제 뿐 아니라 비기질성 성장장애, 아동학대와 방임, 이로 인한 사망이나 불구, 뇌손상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강의 (1995)는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육아와 부모역할에 대한 체계적 교육, 전문가 양성, 직장모를 위한 양육시설 확대, 아동 문제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조처를 위한 전문가 역할 재정립을 제안한 바 있다. 간호전문직은 특히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초기 아동 및 그 부모에게 접근이 용이하다는 강한 이점을 갖고 있다(한경자, 1997).

한편, 모유수유의 장점은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Dewey, et al., 1992; Gulick, 1982), 우리 나라 산모의 모유수유율은 점차 감소추세로서 1990년대에는 30%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으며(박인화, 황나미, 1995; 이경혜, 1992),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최영희, 김혜숙, 박현경, 1997) 이에 대한 전문가의 관심과 지지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산모와 영아어머니의 교육요구에 대한 조사연구나(곽연희와 이미라, 1996; 이경혜, 1982; 한경자 등, 1994; 한경자, 1997), 모유수유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오현이, 박난준, 임은숙, 1994; 이자형, 변수자, 한경자, 1994; 최상순 등, 1996; 최영희 등, 1996), 모두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신생아 돌보기와 모유수유를 위한 체계적인 산모 교육이 미흡한 상황이며, 또한 중재연구의 경우도 일회적인 교육과 단기간의 효과를 보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중재를 통해 교육효과를 보는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경험 미숙으로 산후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신생아 돌보기와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효과의 지속을 위한 상담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초산모의 영아 돌보기 자신감과 모유수유 실천에 어느만큼 효과가 있으며, 어느 기간 그 효과가 지속되는지 봄으로써 앞으로의 산모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 2. 연구목적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영아 돌보기 자신감 및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1) 산후 1개월과 3개월에 측정된 중재군의 영아돌보기 자신감은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 2) 산후 1개월, 2개월, 3개월에 중재군의 모유수유 실천률은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 ### 3. 용어정의

#### 1) 영아돌보기 자신감

영아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양육적인 역할에 대하여 어머니 스스로 자신을 갖거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Pharis(1978)의 Self Confidence Scale에 기초하여, 이혜경(1992)이 4-6주된 아기 돌보기 활동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제시한 항목을 첨가하여 구성된 13항목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말하며 득점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2) 모유수유 실천률

각 측정시점인 산후 1개월, 2개월, 3개월에 모유수유만을 하거나 분유와 모유를 혼합수유 하고 있어 모유수유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비율을 말한다.

## II. 문헌 고찰

### 1. 영아어머니의 어머니 역할 교육 요구와 영아돌보기 자신감

한경자 등(1994)은 일개 군지역의 가정간호 요구조사에서 대상 영유아의 안전과 위생관리, 그리고 모유수유와 관련된 영양관리,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요구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으로 인한 피곤함이나 부부간 갈등호소도 대상 영유아 어머니의 33.7%에서 보여 영유아모의 육아지도 및 지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해주었다. 권미경(1995)은 일개 도시 보건소를 내원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도움, 교육, 상담의 필요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예방접종과 사고예방에 이어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교육이 요구된다는 것을 밝혔다. 한경자(1997)의 연구에서도 종합병원과 보건소에 내원한 산후 6개월 이하의 영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지지, 교육 및 상담요구를 조사한 결과 부모-자녀 상호작용, 응급대처, 사고예방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요구가 비교적 높았으며, 초산모뿐 아니라 경산모도 자녀돌보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예방적 차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돌보기 활동,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자녀돌보기 부모역할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접근 방안의 하나로 가정간호를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혜숙 등(1995)은 산모들에게는 자가간호에 대한 문제보다 신생아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불안감이 있으므로 신생아 간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경혜(1982)는 건강한 신생아어머니 100명을 대상으로 산모의 간호요구를 조사하였는데, 산모들이 도움이나 지도를 필요로 하는 항목은 영아 안전관리, 응급처치, 목욕시키기, 아기울음 의미파악 및 달래기, 젖떼기 및 이유식 준비 등이었다. 이자형(1996)의 연구에서도 초산모는 신생아 양육에 있어 모유수유, 목욕시키기, 배꼽 소독하기, 울음 파악하기, 아기상태 파악하기 등을 어려워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결자, 정연, 이군자(1997)의 연구에서는 정상 신생아 어머니의 교육 요구도는 저체중출생아 어머니의 교육 요구도보다는 낮았지만, 이들도 이상증상 구별과 증세발현시 관리법에 대해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cCain(1990)은 영아를 기르고 부모의 관심사를 설명할 특수한 프로토콜과 프로그램은 개발되고 검증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영아 상태와 행동, 기질에 대한 부모의 교육, 영아 돌보기와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주는 중재, 영아 발달을 향상시키는 부모의 중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어머니 역할은 직관적인 여성의 기능을 통해서가 아니라 문화적 영향과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학습에 의해 획득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면 산모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만족한 경험을 하게 되며, 자신감이나 만족감이 강화될수록 역할수행을 더 잘 할 수 있다(이영은, 1991). 또한, 이은숙(1988)의 연구에서는 산후 4-6주에 일상적인 영아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초산모일수록 영아에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 어머니의 자신감이 모아상호작용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자형(1996)의 연구에서는 초산모는 신생아 돌보기 활동을 잘 할수록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았으며, 정은순과 한명은(1999)의 연구에서도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는 정서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면서, 어머니 역할

수행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간호중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한편, 산후 교육에 대한 간호중재의 효과를 살펴보면, Kitzman, et al.(1997)의 연구에서는 출산후 2년간 자녀 돌보기에 대한 간호중재를 시행하고 그 효과를 장기적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중재가 어머니의 자녀양육 능력을 15년간 지속시킨다고 보고하여서 영아초기의 돌봄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김문실과 이자형(1983a, 1983b)은 분만 후 2-3일의 산모를 대상으로 집단 강의후 산모의 지식 정도를 보았더니 중재군의 산모가 신생아 양육에 관한 지식 정도가 높았으며, 그 후 4주간의 평가에서도 중재군 산모가 양육에 대한 어려움 호소가 낮았다. 광연희와 이미라(1996)의 연구에서도 분만 후 산과병동에 입원한동안 행해진 산모 교육이 산육기 자가간호와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식 및 자신감을 증진시켜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서영미(1998)는 병원에서의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직접 교육을 시행하고 퇴원 후 1주째와 2주째에 전화상담을 실시한 중재군과 이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을 대상으로 분만 4주째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지식, 자신감 및 정확도를 측정 한 결과 중재군의 돌보기에 대한 지식, 자신감, 정확도가 모두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 2. 모유수유 관련요인 및 중재효과

이자형, 변수자와 한경자(1994)는 서울시내 10개 보건소와 5개 종합병원의 육아상담실과 소아과 외래에 등록하여 건강관리를 받고 있는 1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영유아 어머니 1,335명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의 관련요인 및 어머니의 교육요구를 조사하였는데, 대상아동의 52.7%가 인공영양을 하고 있었으며, 모유영양은 25.4%에 불과했다.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어머니측 요인으로는 모유부족, 어머니의 직장생활, 어머니 질병 및 유방문제 등이 있었으며, 영유아측 요인으로는 신생아기 질병 등이 있었다. 모유수유를 잘 시행하기 위해 어머니가 도움을 원하는 것은 유즙분비를 위한 방법, 모유의 장점에 대한 교육, 수유방법 지도 및 분만직후부터 수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 등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자들은 모유수유를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산모교육과 교육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오현이 등(1994)은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모유수유 필요성을 못느낌, 신체적·정신적 부담감, 유즙부족, 아기에 대

한 거부감, 남편의 지지부족, 유두균열 및 동통, 아기의 거부, 가족의 지지부족, 그리고 설사 및 물젖 등 9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또한, 김혜숙(1995)은 산모를 대상으로 약 6개월 동안 154건의 모유수유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상담의뢰 시기는 산후 1주 이내가 28%, 4주 이내가 58%로 주로 산육초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함을 보고하였으며, 상담문제 양상은 수유방법, 수유간격 및 기간, 아기배설, 정신적 요인, 수유부의 질환 등의 순이었다고 하면서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해서는 산후 2주일이 가장 중요하며, 퇴원시 교육 후에도 전화나 방문을 통한 상담을 통해 산모가 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모유수유는 모아사이의 보다 직접적이고 밀접한 생물학적 관계형성으로 인해 모아상호작용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Reeder & Martin, 1987), 아직 미완성된 영아의 눈이 초점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거리는 아기를 안고 모유수유를 할 때 어머니와 영아의 눈의 거리와 같다. 모유수유를 하면 영아와 신체적, 감정적으로 가까워져 친밀감이 형성되고 어머니가 영아의 요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적절한 관계형성이 이루어지며, 접촉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영아의 욕구를 더 충족시킬 수 있다(김혜숙, 1995; 권미경, 1997).

여러 가지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정금희(1997)의 연구에서는 산후 6-24시간 이내에 개별 모유수유 교육을 실시하고 첫 모유수유시도 격려 및 시범을 보인 일차간호중재와 퇴원 후 7-10일에 가정방문을 통한 재교육, 상담의 이차간호중재를 실시하고 산후 4주와 8주 2회에 걸쳐 모유수유 실천을 조사하였는데,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더 올바르게 모유수유방법을 실천하였으며, 산후 4주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도 더 긍정적이었다. 모유수유의 지속정도는 산후 4주에 실험군 84.85%로 대조군의 65.12%보다 높았으며, 산후 8주에 실험군은 78.79%로 대조군의 34.88%보다 훨씬 많은 초산모가 모유수유를 지속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산모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남은숙(1997)의 연구에서도 퇴원전 모유수유 교육을 실시한 실험군은 퇴원 후 4주와 12주에 모유수유 지속률이 각각 68.9%, 42.6%이었던 반면에 대조군은 각각 60%, 34.5%로 실험군이 유의하게 모유수유 지속률이 높았다. 안신영과 고효정(1999)의 연구에서는 산후 6~24시간

에 모유수유에 대한 1차교육을 실시하고 산후 7~10일에 전화상담을 통한 2차교육을 실시한 후 산후 4주에 그 효과를 보았는데, 실험군은 산후 4주에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산후 4주의 모유수유 지속률도 실험군 88.5%, 대조군 63.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은숙과 서영숙(1996)의 연구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보았는데 모유수유에 대한 퇴원전 교육과 산육기의 전화상담을 실시한 실험군에서 산후 4개월의 모유수유 지속률은 55.1%로 대조군의 33.3%보다 유의하게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산모의 교육요구에 대한 조사 연구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모두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효과도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신생아 돌보기와 모유수유를 위한 체계적인 산모 교육이 미흡한 상황이며, 교육이 일회적인 경우가 많고 그 효과를 장기적으로 본 연구도 드물다. 또한, 영아 돌보기나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이 모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가지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연구들이 많아 산모들의 교육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영아 돌보기와 모유수유에 대한 내용을 같이 포함하는 산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보다 장기적으로 보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신생아 돌보기와 모유수유를 위한 어머니교육을 제공 받는 중재군과 중재를 받지 않는 대조군의 영아돌보기 자신감, 모유수유 실천률을 비교하는 비동등성 대조군 유사실험 설계이다.

#### 2. 연구 대상자

1999년 3월 15일부터 1999년 6월 3일까지 약 2개월 20일에 걸쳐 서울시내 1개 대학병원의 2개 산과병동에 입원한 산모중 서울 및 경인지역에 거주하는 초산모로서 아기의 재태기간이 37주 이상이고 출생시 체중이 2.5kg 이상이며,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자로 임의 표출하였다. 한편, 대조군과 중재군의 만남을 통한 실험의 확산

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조군 24명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후 중재군 24명의 모집을 시작하였다. 이중 생후 3개월의 추후조사시 대조군중 6명, 중재군중 5명이 탈락하여 최종 대상자 수는 대조군 18명, 중재군 19명으로 총 37명이었다.

### 3. 연구 도구

영아돌보기 자신감은 Pharis(1978)의 도구를 기초로 이해경(1992)이 4-6주된 아기 돌보기 활동에 적합한 항목을 첨삭한 것으로 영아울음 의미파악, 목욕시키기, 수유, 기저귀 갈아주기, 옷 갈아입히기, 안아주기, 영아상태 설명, 체온측정, 손·발톱 깎아주기, 눈·코·귀·깨끗이 해주기, 트림시키기, 잠재우기, 우는 아기 달래기 등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득점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해경(1992)의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 신뢰계수가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산후 1개월에 .86, 3개월에는 .78이었다.

모유수유 실천률은 가정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생후 1, 2, 3개월에 수유형태를 질문하여 확인하였다.

### 4. 연구 절차

먼저 대조군에게는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산과적 자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퇴원 후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처를 확인하였다. 중재군에게는 이와 동일한 설문조사와 함께 퇴원전 연구자가 계획한 모유수유와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였다. 교육을 위해 기존의 문헌을 토대로 영아 어머니의 주요 관심사인 모유수유의 장점, 젖 물리는 방법과 자세, 적당한 수유시간과 간격, 젖 분비를 늘리기 위한 전략 등 모유수유에 관한 내용과 신생아의 목욕 시키기, 수면, 환경, 대변, 신생아 황달, 신생아의 학습과 놀이, 그리고 발달 촉진을 위한 가정환경의 조성 등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내용을 담은 "모유수유와 신생아 돌보기"라는 책자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중재군에 대한 교육은 분만 후 2-7일 사이의 퇴원 전 기간에 병동의 신생아실에 있는 수유 및 교육실에서 시행하였으며 이후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구자의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퇴원후 1주 이내에 중재군의 산모에게 전화를 하여, 모유수유와 영아 돌보기에 대한 어려움을 상담하고, 교육

내용을 잘 실천하도록 격려했다. 이후 산후 1개월에는 가정방문을 통해, 그리고 산후 2개월에는 전화상담을 통해 상담과 지지를 제공하였다.

자료수집은 산후 1개월과 3개월에는 영아돌보기 자신감을 측정하였으며, 산후 1개월, 2개월, 3개월에 모유수유 실천률을 전화나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window SPSS program(version 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일반적인 사항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고, 두 집단간의 사전 동질성 검증은  $\chi^2$ -test와 t-test를 이용하였다.
- 2) 연구가설 검증은  $\chi^2$ -test와 t-test를 이용하였다.
- 3)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coefficient로 검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 영아 및 영아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이에 따르는 중재군, 대조군간의 그룹간 동질성은 <표 1>과 같이 영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 학력, 어머니의 직업 유무, 가족의지지 유무 등이 모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군에 속한 영아어머니와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각각  $29.16 \pm 2.59$ 세와  $31.63 \pm 3.11$ 세였고, 대조군에 속한 영아어머니와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28.56 \pm 2.33$ 세,  $31.50 \pm 2.85$ 세로 두 군간에 차이는 없었다. 영아어머니의 학력은 중재군 19명중 대졸이상이 13명, 대조군 18명중 대졸이상이 12명으로 두 군간에 차이는 없었으며, 상당히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는 중재군이 5명, 대조군이 5명으로 두 군간에 차이는 없었으며, 대부분의 영아어머니가 직업을 갖고있지 않았다.

영아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중재군의 12명, 대조군의 9명이 있다고 대답하여 약 반 수 정도의 산모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족형태는 중재군의 14가구, 대조군의 15가구가 핵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중재군 실수(%)	대조군 실수(%)	x <sup>2</sup> 또는 t	p
어머니 연령	평균±표준편차	29.16±2.59	28.56±2.33	t=-.742	.463
아버지 연령	평균±표준편차	31.63±3.11	31.50±2.85	t=-.134	.894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6(31.6)	6(33.3)	x <sup>2</sup> = .013	.909
	대졸이상	13(68.4)	12(66.7)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3(15.8)	5(27.8)	x <sup>2</sup> = .784	.376
	대졸이상	16(84.2)	13(72.2)		
어머니 직업	유	5(26.3)	5(27.8)	x <sup>2</sup> = .010	.920
	무	14(73.7)	13(72.2)		
조력자	유	12(63.2)	9(50.0)	x <sup>2</sup> = .652	.419
	무	7(36.8)	9(50.0)		
가족형태	핵가족	14(73.7)	15(83.3)	x <sup>2</sup> = .508	.476
	확대가족	5(26.3)	3(16.7)		
가족 월수입	평균±표준편차 (단위, 만원)	208.42±98.11	185.28±70.51	t = -.820	.418
분만형태	자연분만	15(78.9)	12(66.7)	x <sup>2</sup> = .707	.401
	제왕절개	4(21.1)	6(33.3)		
영아의 성별	남	9(47.4)	9(50.0)	x <sup>2</sup> = .026	.873
	여	10(52.6)	9(50.0)		
출생시 체중	평균±표준편차	3.23±.35	3.31±.40	t = .697	.491

가족으로서, 다수의 대상자가 영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영아의 세 식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족의 월수입은 중재군이 208.42만원, 대조군이 185.28만원으로 중재군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중재군과 대조군의 분만형태를 비교해 보면, 중재군은 19명중 자연분만 15명, 제왕절개 4명, 대조군은 자연분만 12명, 제왕절개 6명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전체 37명의 대상자중 73%인 다수의 산모가 자연분만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재군과 대조군 영아의 성별을 살펴보면, 중재군 19명중 남아 9명, 여아 10명이었으며, 대조군은 남아 9명, 여아 9명으로 역시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고 남아와 여아의 비율도 거의 동일하였다. 출생시의 체중은 중재군의 평균이 3.23±.35kg, 대조군의 평균이 3.31±.40kg로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영아돌보기 자신감

### 1) 중재군과 대조군 영아돌보기 자신감의 차이

출산 후 1개월의 영아돌보기 자신감은 중재군 47.89점, 대조군 43.2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그러나 출산 후 3개월에는 중재군 53.53점, 대조군 51.39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표 2〉 중재군과 대조군의 영아돌보기 자신감

	중재군	대조군	t	p
산후 1개월	47.89±7.46	43.28±5.34	2.153	.038*
산후 3개월	53.53±6.90	51.39±8.49	842	405

\*p<.05.

### 2) 시간경과에 따른 영아돌보기 자신감의 변화

중재군과 대조군의 두집단에서 1개월과 3개월의 시간경과에 따른 영아돌보기 자신감의 차이를 paired t-test로 분석한 결과, 중재군은 1개월시 47.89점에서 3개월시 53.53점으로, 대조군은 1개월시 43.28점에서 3개월시 51.39점으로 두 군 모두 시간경과에 따라 영아돌보기 자신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표 3).

〈표 3〉 중재군과 대조군의 시간경과에 따른 영아돌보기 자신감

	산후 1개월	산후 3개월	t	p
중재군	47.89±7.46	53.53±6.90	-4.637	.000***
대조군	43.28±5.34	51.39±8.49	-5.976	.000***

\*\*\*p<.001

### 3) 중재군과 대조군의 항목별 자신감

항목별 자신감을 살펴보면 중재군은 생후 1개월에 첫

(우유) 먹이기 이외의 모든 항목에서 대조군보다 높은 자신감을 보였는데, 수유 항목에서는 중재군의 경우 대조군보다 모유수유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인 항목은 기저귀 갈기( $p=.016$ ), 트림시키기( $p=.003$ ) 두 항목이었다. 생후 3개월에는 혼자서 목욕시키기와 아기의 체온 측정외의 항목에서 중재군이 대조군보다 근소하게나마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트림시키기 한 항목이었다(표 4).

## 2. 모유수유 실천률

출산 후 1개월, 2개월 3개월의 모유수유 지속여부에 대한 중재군과 대조군의 그룹간 차이를 살펴보면, 1개월과 2개월에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0, .049$ ). 그러나 출산 후 3개월에는 중재군중에는 모유수유를 지속하는 산모가 47.4%인 9명, 대

조군중에는 27.8%인 5명으로, 중재군이 더 많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5).

## VI. 논 의

### 1. 영아돌보기 자신감에 대한 중재 효과

본 연구의 중재 프로그램은 초산모의 영아돌보기 자신감과 모유수유 실천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시행되었는데, 산후 1개월의 영아돌보기 자신감은 중재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5$ ). 이는 퇴원전 교육에서 영아돌보기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였으며, 퇴원 후 1주이내에도 전화를 통해 아기 돌보기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고 상담을 한 결과인 것으로 보이며 서영미(1998)의 연구에서와 비슷한 결과이다. 그러나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권미경(1997)의 연구에서 퇴원

〈표 4〉 중재군과 대조군의 항목별 자신감

항 목	생후 1개월			생후 3개월		
	중재군	대조군	p값	중재군	대조군	p값
1. 아기울음의 의미 파악	3.42	3.11	.225	3.84	3.50	.195
2. 우는 아기 달래기	3.42	3.33	.730	3.89	3.78	.636
3. 혼자서 목욕시키기	2.79	2.33	.198	3.79	4.06	.455
4. 젓(우유) 먹이기	3.95	4.00	.851	4.47	4.44	.886
5. 기저귀 갈기	4.63	4.17	.016*	4.68	4.56	.481
6. 옷 갈아 입히기	4.05	3.63	.457	4.63	4.56	.725
7. 편안하게 안아주기	3.89	3.33	.100	4.37	4.22	.575
8. 트림시키기	3.89	3.00	.003**	4.42	3.83	.042*
9. 잠 재우기	3.63	3.22	.194	3.95	3.72	.519
10. 아기기분 파악하기	3.58	3.17	.082	3.95	3.72	.437
11. 아기의 체온측정	3.58	3.28	.237	3.53	3.56	.923
12. 아기상태 설명하기	3.53	3.22	.228	3.95	3.67	.319
13. 눈, 귀, 코 깨끗이 하기	3.53	3.28	.437	4.05	3.87	.357

\* $p<.05$ , \*\* $p<.01$

〈표 5〉 중재군과 대조군의 모유수유 실천률의 차이

측정시기	구 분	중재군 실수(%) (n=18)	대조군 실수(%) (n=19)	$\chi^2$	p
산후 1개월	모유수유 지속	13(68.4)	6(33.3)	4.555	.050*
	모유수유 중단	6(31.6)	12(66.7)		
산후 2개월	모유수유 지속	12(63.2)	5(27.8)	4.659	.049*
	모유수유 중단	7(36.8)	13(72.2)		
산후 3개월	모유수유 지속	9(47.4)	5(27.8)	1.508	.313
	모유수유 중단	10(52.6)	13(72.2)		

\* $p<.05$ .

후 4주면 이미 대조군의 어머니들도 중재군과 비슷한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는 보고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산후 3개월에는 중재군과 대조군간에 영아돌보기 자신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3개월간의 경험을 통해 대조군도 영아돌보기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긴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두 군 모두 산후 1개월보다는 3개월에 영아돌보기 자신감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0$ ).

항목별 자신감을 살펴보면 중재군은 생후 1개월에 젓(우유) 먹이기 이외의 모든 항목에서 대조군보다 높은 자신감을 보였는데, 수유 항목에서는 중재군의 경우 대조군보다 모유수유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인 항목은 기저귀 갈기( $p=.016$ ), 트림시키기( $p=.003$ ) 두 항목이었다. 생후 3개월에는 혼자서 목욕시키기와 아기의 체온 측정의 항목에서 중재군이 대조군보다 근소하게나마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트림시키기 한 항목이었다. 조결자 등(1999)의 연구에서는 퇴원 전 신생아돌보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에서 퇴원 후 4주의 어머니 자신감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포옹, 기저귀 갈아주기, 수유하기, 배꼽돌보기였다. 본 연구도 구와는 다른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수유의 경우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조 등의 연구에서는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모유수유 실천률에 차이가 없어서 본 연구에서처럼 모유수유를 많이 하는 중재군에서 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결과가 안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중재군과 대조군 전체를 보았을 때 13개의 문항중 1개월에 자신감이 높았던 문항은 기저귀갈기, 젓(우유) 먹이기, 옷갈아 입히기, 편안하게 안아주기 등이었으며, 자신감이 가장 적었던 문항은 혼자서 목욕시키기, 아기울음의 의미 파악, 아기상태 설명하기, 우는 아기 달래기, 아기 기분 파악하기 등이었다. 산후 1개월까지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산후조리원 등으로부터 아기돌봄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혼자서 목욕시켜볼 기회가 거의 없어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스로 아기를 돌보기 시작하는 시기에 가정방문을 통해 시범을 보이거나 실습해 보도록 하면서 도움 말을 주면 훨씬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자신감이

없는 문항들은 권미경(1997)이나 이은숙(1987)의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인데, 다만 권의 연구에서는 미숙아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유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편이었던 반면에,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산후 1개월에는 이미 수유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차이였다.

3개월까지도 체온측정은 두 군 모두에서 자신감이 낮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기의 체온을 한 번도 측정해야할 필요성이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문항도 보통 이상의 자신감은 나타냈으나 다른 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항목으로 나왔다고 본다. 그 외의 항목은 두 군 모두에서 문항평균이 3.6점 이상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아기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모유수유 실천에 대한 중재 효과

본 연구에서 산후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의 경우 많은 수인 66.7%의 산모가 산후 1개월 동안도 모유수유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유수유율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비해 퇴원교육과 더불어 모유수유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을 받고 주기적인 상담과 지지를 받은 중재군의 경우 다수인 63.2%의 산모가 최소한 2개월이상 모유수유를 지속함을 확인할 수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산모교육의 효과를 입증해 주었으며, 이에 대한 간호중재가 많이 활성화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중재군은 3개월에도 모유수유지속률이 47.4%였는데, 2개월에서 3개월사이에 모유수유율이 감소한 것은 직장을 다니는 산모의 경우 산후조리 기간이 끝나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시점이어서 모유수유를 지속하기 어려워 하는 산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연구에서 직장생활이 모유수유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자형 등, 1994; 최영희 등, 1996; 최상순 등, 1996)과 일치하는데, 그러므로 직장을 다니면서도 모유수유를 지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지지가 함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산모교육에서는 우선 모유수유가 힘들고 어머니의 정성이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고 공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를 지속해야만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산모에게 모유수유 실천에 대한 동기화를 시키며, 처음에 산모가 의도했더라도 모유수유에 실패하게



되는 주요 원인들인 유즙분비 감소, 유두 균열, 밤 수유 중단, 부적절한 수유자세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및 예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던 것이 모유수유 지속률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퇴원 후 모유수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더욱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에 전화상담을 통해 모유수유를 중단하지 않도록 격려, 지지하고 구체적인 개인별 문제들을 상담했던 것이 매우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퇴원 후 1주 이내에 어머니가 모유를 짜서 병에 담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기가 젖을 빠는 데 성공한 경우는 이후에 잘 적응하여 모유수유를 일정기간 지속할 수 있었다.

다른 모유수유 중재 효과를 본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중재군의 모유수유 지속률이 산후 1개월에 68.4%, 2개월에 63.2%, 3개월에 47.4%였는데, 안과 고(1999)의 연구에서는 산후 1개월에 88.5%, 남은숙(1997)의 연구에서는 산후 1개월에 68.9%, 산후 3개월에 42.6%, 이와 서(1996)의 연구에서는 산후 1개월에 83.1%, 산후 4개월에 55.1%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3개월까지 주기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지속하였는데, 장기적인 효과를 본 연구들이 드물어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남(1997)의 연구에서보다는 3개월시의 모유수유 지속률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1개월 이후에도 전화상담이나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과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Ⅷ.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신생아 돌보기와 모유수유를 위한 어머니교육을 제공 받는 중재군과 중재를 받지 않는 대조군간의 영아돌보기 자신감, 모유수유 지속 여부를 비교하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유사실험 설계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1999년 3월 15일부터 1999년 6월 3일까지 약 2개월 20일에 걸쳐 서울시내 1개 대학병원의 2개 산과병동에 입원한 산모중 서울 및 경인지역에 거주하는 초산모로서 아기의 재태기간이 37주이상이고 출생시 체중이 2.5kg 이상이며,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자로 임의 표출하였다. 한편, 대조군과 중재군의 만남을 통한 실험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조군 24명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후 중재군 24명의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이중 산후 1개월과 3개월의 추후조사시 대조군중

6명, 중재군중 5명이 탈락하여 최종 대상자 수는 대조군 18명, 중재군 19명으로 총 37명이었다.

중재군에게는 퇴원전 연구자가 계획한 모유수유와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였으며, 퇴원 후 1주 이내에 중재군의 산모에게 전화를 하여, 모유수유와 영아 돌보기에 대한 어려움을 상담하고, 교육내용을 잘 실천하도록 격려하였다. 이후 산후 1개월에는 가정방문을 통해, 그리고 산후 2개월에는 전화상담을 통해 상담과 지지를 제공하였다.

자료수집은 산후 1개월과 3개월에는 영아돌보기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였으며, 산후 1개월, 2개월, 3개월에 모유수유 지속여부를 전화나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산후 1개월에 중재군의 영아돌보기 자신감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p=.038$ ), 산후 3개월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중재군과 대조군 모두 산후 1개월보다 산후 3개월에 영아돌보기 자신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0$ ).
3. 중재군의 모유수유 지속률은 중재군의 모유수유 지속률보다 산후 1개월과 2개월까지는 유의하게 높았으나( $p=.050$ ,  $p=.049$ ), 산후 3개월에는 중재군의 47.4%가 모유수유를 지속하고 있어 중재군의 27.8%보다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한다.

1. 영아 돌보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모유수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산모교육 프로그램이 퇴원전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시행될 것을 제안하며, 또한, 일회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전화상담이나 가정방문을 통한 추후관리를 통해 산모들이 직접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에 상담과 지지를 통한 강화를 해줄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적용이 많이 활용되기를 제안한다.
2. 모유수유를 최소 6개월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산모의 인식전환 교육이 산모교육시 더 강조되어야 하겠다.
3. 영아돌보기 자신감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범교육이 필요하다.
4. 보다 강화된 산모교육 프로그램의 적용과 장기적인 효과를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곽연희, 이미라 (1996). 산모교육의 효과 측정-산욕기 자가간호와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을 중심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2), 246-255.
- 권미경 (1997). 영아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에 대한 조사연구. 아동간호학회지, 3(2), 117-130.
- 김문실, 이자형 (1983a). 신생아 양육에 대한 산모교육이 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44(1), 25-30.
- 김문실, 이자형 (1983b). 신생아 양육에 대한 산모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II. 중앙의학, 46(1), 67-73.
- 김지신 (199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분석 -유아기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창간호, 85-107.
- 김혜숙 (1995). 모유수유 전화 상담내용의 분석. 간호학회지, 25(1), 17-29.
- 남은숙 (1997). 산후 모유수유 교육프로그램이 수유행위에 미치는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3(2), 241-254.
- 박영숙 (1991).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전환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인화, 황나미 (1995). 모유수유 실태 분석과 지원정책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수자, 한경자, 이자형 (1994). 모자간호학회지, 4(1), 52-67.
- 서영미 (1998). 신생아 돌보기 교육 프로그램이 초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 자신감, 행동 정확도에 미치는 효과. 간호학회지, 28(4), 1060-1074.
- 안신영, 고효정 (1999). 모유수유 교육이 초산모의 모유수유 방법, 태도 및 지속정도에 미치는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1), 18-29.
- 오현이, 박난준, 임은숙 (1994).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68-79.
- 유안진, 김연진 (1997). 부모교육. 동문사.
- 이경혜 (1982). 산욕기 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12(2), 62-79.
- 이경혜 (1992). 국내 모유수유 실태. 생활간호, 12, 114-116.
- 이영은 (1991). 산욕초기 초산모의 간호목표달성방법 합의가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은숙 (1987).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은숙, 서영숙 (1996). 모유수유 강화교육 프로그램이 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1), 59-75
- 이자형 (1996). 초산모의 신생아 돌보기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간호과학, 8(1), 97-108.
- 이자형, 변수자, 한경자 (1994). 모유 수유 관련요인 및 어머니의 교육요구. 간호과학, 6, 76-85.
- 이혜경 (1992).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역할획득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금희 (1997). 모유수유증진 간호중재프로그램이 초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은순, 한명은 (1999).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1), 79-88.
- 조결자, 이군자, 이옥자 (1999). 신생아 돌보기 교육이 어머니의 자신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5(1), 84-96.
- 조결자, 정 연, 이군자 (1997). 저체중출생아 어머니와 정상신생아 어머니의 간호교육요구도 조사. 아동간호학회지, 3(1), 5-18.
- 최상순, 이은희, 윤경희, 심복경, 최남희 (1996). 모유수유 실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2), 222-234.
- 최영희, 김혜숙, 박현경, 이영희 (1996). 모유수유부의 모유수유 실천에 따른 관련요인 분석. 대한간호, 35(5), 98-108.
- 최영희, 김혜숙, 박현경 (1997). 모유수유를 실천한 어머니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신념 및 지식정도. 대한간호, 36(2), 64-71.
- 한경자 (1997).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봄의 부담감과 지지, 교육 및 상담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아동간호학회지, 3(2), 228-240.
- 한경자, 박성애, 하양숙, 윤순영 (1994). 일개 군 지역의 가정간호 요구조사. 간호학회지, 24(3), 484-498.
- 홍강의 (1995). 자녀양육과 부모역할의 위기. 소아진료부 개원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서울대학교병원.

- Bromwich (1997). Working with families and their infants at risk. Texas: Pro-ed.
- Dewey, K. G., Heinig, M., J., Nommsen, L. A., Peerson, J. M., & Lonnerdal, B. (1992). Growth of Breastfed and Formulated Infants from 0 to 18 Months - The Darling Study. Pediatrics, 89(6), 1035-1041.
- Gulick, E. E. (1982). Informational correlates of successful breastfeeding. MCN, 7, 370-375.
- Kitzmann, H., Olds, D., Echenrode, J., Cole, R., & Holmberg, S. (1997). Long-term edffects of early home visitation on caregiving, vision, and voices : Passages into 21st century, 9th Annual Scientific Sessions of the Eastern Nursing Research Society.
- Meisels, S. J., & Shonkoff, J. P. (1990).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NY: Cambridge Univ. Press.
- McCain, G. C. (1990). Parenting growing preterm infants. Pediatric Nursing, 16(5), 467-470.
- Mercer, R. T. (1981).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ing factors that impact on the maternal role. Nursing Research, 30, 73-77.
- Pharis, M. E. (1978). Age and Sex Differences in Expectations fro Infants and the Parenting Role among Couples in a first Pregnancy and among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Texas at Austin.
- Reeder, S. J., & Martin, L. L. (1987). Maternity Nursing(16th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Shore, R. (1997). Rethinking the Brain : New Insights into Early Development. NY: Families and Work Institute.

- Abstract -

Key concept : Maternal education,  
Maternal confidence, Breastfeeding

## The Effects of Educational Program for Primiparas on Maternal Confidence and Breastfeeding

*Bang, Kyung Sook\* · Han, Kyung J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for primiparas on maternal confidence and continuity of breastfeeding.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healthy mothers, and the healthy infants whose weight was more than 2,500gm and gestational age was more than 37 weeks. The final targets were thirty seven mothers-19 of intervention group and 18 of control group.

Data were collected from 15th of March to 3rd of September, 1999. To the intervention group, education on infant care and breast feeding were provided before discharge. And that, telephone advice was provided within one week after discharge, and at 2 months postpartum. And that, reeducation and counsel were provided at one month and three months postpartum by home-visiting care for the intervention group. For the control group, home visiting was also conducted only for data collection.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test and t-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aternal confidenc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at one month postpartum, but the difference of confidence of these two groups were not significant at three months postpartum.

---

\* Doctoral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2. For both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maternal confidence significantly increased at three months postpartum than one month postpartum.
3. The rate of breastfeeding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at one month and two months postpartum ( $p=.050$ ,  $p=.049$ ). But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at three months, although experimental group continued breastfeeding more(47.4%) than control group(27.8%).

In conclusion, educational program for primiparas of this study was effective in the promotion of maternal confidence and breastfeeding.